제153호
발 행 일 : 서기 2021년 11월 30일
창 간 일 : 서기 1969년 5월 1일
재창간일 : 서기 1983년 8월 15일
구독신청 : (02) 2244-3717
(02) 2244-3710
FAX : (02) 2243-1073

安東金氏 大宗會報

발 행 인 : 김 석 한
편 집 인 : 김 태 영
인 쇄 인 : 김 원 희
발 행 처 : 안 동 김 씨 대 종 회
(우) 02435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1
홈페이지 : andongkimc.kr
E-mail : andongkimgu@naver.com

존경하는 안동김문 종친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존경하는 안동김문 종친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신년 인사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해 달력이 나오는 것을 보니 새삼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실감합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도 코로나19와의 지루한 싸움으로 힘들었던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서도 변함없이 종사에 높은 관심과 대종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지난번 안동 충렬공 시제에 성황을 이뤄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종회는 종친 여러분들 덕분에 조상님들께서 남긴 뜻을 받들어 안동김문을 모범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건축된 지 40년이 지난 낡은 휘경동 대종회관을 개축하여 말끔하게 단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완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각 파종회와 회장단 임원 종친여러분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각 파종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종회의 설립 목적은 조상을 받들고 종친간의 화목을 다지는 일입니다. 그 첫째가 위선사업 중에 선영수호 사업입니다. 명년에는 충렬공 묘역과 능동재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낡은 관리사를 개축하고, 또한 충렬공 중시조 묘소를 수호해온 7백여 년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적비를 건립하기로 지난 11월 1일 회장단 회의에서 의결하여 대종회장인 저에게 위임한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위선 사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동김문 종친 여러분들께서 참여의식을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도와 주셔야 가능합니다. 안동김문의 자존과 충렬공 중시조의 위상을 높이고 명문의 집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종친 여러분께서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능동에 관리사가 준공되면 안사연과 협의하여 대종회가 주최하고 안사연이 주관하는 1박 2일 음수재 캠프를 연례적으로 개최해서 시제 홀기 및 독축, 위선사업과 종친간의 화목, 뿌리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일반 종친들은 물론 젊은 종친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종친 서로간의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힘들고 복잡한 사회생활에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상생의 윈윈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싶은 것이 대종회장의 기본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현실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종친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대종회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신축년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의 설계를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종친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1월 일
안동김씨 대종회 회장 김 석 한 拜上

회비를 보내주신 종친들게 감사드립니다. (2021년 8월 26일 ~ 2021년 11월 26일)

◎ 임원회비
- 100만원 : (翼)석한 대종회장
- 20만원 : (郡)재이 · 희용 · 성묵 (副)원호 (文)윤만 (都)옥수 (正)태석 (提)재만 · 태선 (按)형남 · 태성 (翼)재남 · 재교 · 정묵 · 태성

◎ 임원회비 (이사)
- 10만원 : (郡)장묵 · 중회 · 승남 · 재구 (典)태진 (副)규세 (文)윤식 · 광묵 · 용구 · 경회 (都)대회 (提)한식 · 장응 · 규철 · 운철 · 태호 · 용항 (按)봉진 · 재필 · 용원 · 용주 · 재명 · 태영 · 인식 · 현수 (翼)근식 · 선회 · 윤묵 · 재택 · 상묵 · 태강 · 태신 · 영수 (?)회비

◎ 통상회비 (일반)
- 20만원 : (典)양천안동종친회
- 5만원 : (大)태균 (翼)용회 (正)경랑
- 3만원 : (提)태흥
- 2만원 : (文)덕 (翼)태원 (?)오병주

◎ 찬조금
- 20만원 : (翼)태성
- 10만원 : (翼)상회

◎ 평생회비
- 20만원 : (文)건

회비 및 성금 계좌번호 안내

※반드시 소속(派)과 이름을 병기하시어 입금하시고 대종회 02-2244-371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회비(부회장) – 20만원 • 임원회비(이 사) – 10만원 • 평생회비(개 인) – 20만원 • 통상회비(개 인) – 2만원 이상 • 찬 조 금(개인 및 단체) –	국민은행 356201-04-133305 안동김씨대종회

안동김씨대종회 회장단회의 성료

2021. 11. 01(월) 오전 11시부터 휘경동 대종회관 회의실에서 김석한 대종회장을 비롯한 각 파종회장들이 모인가운데 회장단회의가 개최되었다. 재적 35명 중 21명의 부회장과 주요 임원 등 모두 34명이 참석하여 사무총장이 성원되었음을 보고하고 대종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진행 순서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와 선조님 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의례를 마치고 사무총장이 참석 부회장님들을 일일이 소개하였다.

대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모임을 갖지 못하다가 오래만에 건강한 모습들 뵙게되니 더욱 반갑다는 말씀을 하시고 바쁘신 가운데도 멀리 강진, 봉화, 대구, 부여 등을 비롯한 원근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부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현안인 대종회관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무사히 마칠수 있었던 배경에는 종사에 항상 협조 해 주시는 부회장님들의 덕분이라고 노고를 치하 하였다. 이어서 사무총장은 배포한 회의자료 설명을 통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순에 따라 상정한 충렬공 묘사를 위한 관리사의 총체적인 노후화로 신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안건에서 충렬공 시제일에 현장을 둘러본 후 다시 현안 문제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두 번째 안건은 2019년도 5월에 개최한 회장단 회의에서 결의한 충렬공 묘소 수호 사적비 건립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사항을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대종회장에게 위임하였다.

회의 종료 후 회의실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며 그동안 소통하지 못했던 소식들을 전하며 돈목의 대화를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대종회장께서 마련한 마스크 각티슈 등 선물과 준공기념 수건을 나눠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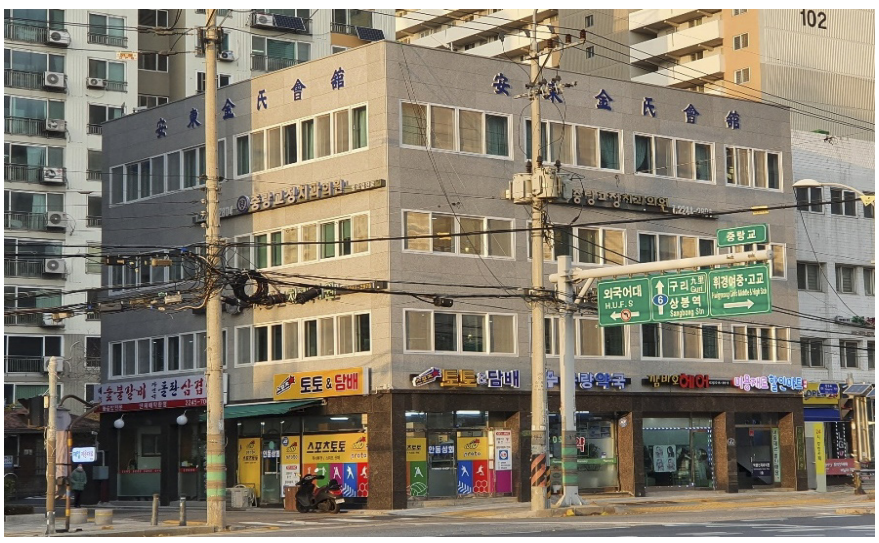
휘경동 대종회관 리모델링공사 준공

안동김씨대종회는 11월 01일 월요일 오전 11시 김석한 대종회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회의를 개최한 뒤, 회관 리모델링공사의 조촐한 준공식을 가졌다. 휘경동 대종회관은 연면적 1,016.88㎡ 규모의 지하1층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 벽돌구조로 지은 근린생활시설이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비는 종중기금과 헌성금으로 마련됐으며 총공사비는 3억 5천만원 가량 투입됐다. 김석한 대종회장은 우리 안동김씨 종친들이 언제든지 대종회관을 편하게 방문하여 조상님 뿌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장소로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회관 현황】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131 (휘경동 112-49)					
대지	370㎡	중심미관지구	건폐율	57.78%	용적률	217.05%
건축면적	1,016.88㎡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년도	1978년 7월 준공, 1978년 8월 입주					
지층	213.79㎡	근생시설	제일미용재료상			
1층	213.79㎡	〃	미용실. 약국. 마트. 식당			
2층	213.79㎡	〃	치과			
3층	213.79㎡	〃	치과			
4층	161.72㎡	〃	사무실 (연구소)			

▲착공전 모습



▲준공후 모습

중시조 충렬공 세일사 봉향(中始祖 忠烈公 世一祀 奉享)

2021년 11월 13일(토)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능동에 소재한 충렬공(휘 방경) 중시조 묘소에서 안동김씨대종회 김석한 회장을 비롯한 경향각지의 임원 종친가족 후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신축년 시제를 奉享 하였다.

충렬공(諱 方慶, 1212~1300)의 자는 본연(本然)이고 시호는 충렬, 첨의중찬과 첨의령을 지내고 벽상공신(壁上功臣)으로 오등작의 으뜸인 상락군개국공(上洛郡開國公)의 공작(公爵)에 이어 식읍 3천호 식실봉 3백호를 받으시고 훙서(薨逝)하신 후에는 충선왕의 명에 의해 신도비를 세워 고려 최대 안사공신의 예우를 다하였다.

집례를 맡은 문온공파종회 윤만 회장의 창홀 운률(韻律)이 청명한 가을 하늘에 울려 퍼지면서 이에 맞춰 헌관. 축관. 찬인. 제집사 등 모든 참예자들은 엄숙하고도 경건하게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성을 다해 맡은 의식을 진행하였다.

二〇二一年 安東時祭 分榜記		
능동 충렬공 묘소	初獻官	(翼)재용在瑢 대종회고문
	亞獻官	(提)태헌泰憲 파종회장
	終獻官	(典)흥식興植 파종회장
회곡 냉평국대부인 단소	初獻官	(郡)준회俊會 파종회장
	亞獻官	(書)덕영德永 파종회장
	終獻官	(翼)태용泰龍 참의공회장
山神		(提)규원奎元 대종회 감사
執禮		(文)유만潤萬 파종회장
大祝		(翼)동수東洙 안동유사
陳設		(翼)재교在敎 안동종친회장
贊引		(郡)재구在九 (判)사무국장
奉香		(按)봉진鳳振 대종회 이사
奉爐		(郡)장묵張默 대종회 이사
司樽		(翼)태신泰信 대종회 이사
奉爵		(文)영윤榮潤 대종회 이사
奠爵		(翼)형식亨植 파종회 이사
時到		(郡)태영泰榮 사무총장
直日		(都)봉회鳳會 명예회장

시제가 끝나고 김석한 대종회장은 참석해 주신 종친 여러분과 시제 준비를 위해 애쓰신 안동종친회와 안동부녀회 분들께도 깊이 감사하며 내년에 다시 만날 때 까지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라는 덕담의 인사말씀을 끝으로 묘전에서 합동 기념 촬영을 하였다.

이번 시제의 제수(祭需)는 안동부녀회의 주관으로 마련하고 식사도 음수재 마당에 차려진 식탁에 육개장으로 정성껏 준비하였다.

매년 제주(祭酒)를 보내주시는 신평양조장 용세 고문님께도 감사드리며, 식사를 마치고 풍산읍 회곡동으로 이동하여 냉평국대부인 죽주박씨 할머님의 단소에 시제를 봉향하고 모든 일정을 마감했다. 따듯한 날씨만큼이나 종친 모두가 한 혈족임을 확인하는 뜻깊은 날이 되었다. 귀가 길에 대종회장께서 준비한 마스크. 안동간고등어. 기념타올을 나눠 드리고 내년을 기약하며 작별했다.

▲ 안동부녀회에서 재실에 모여 제기를 깨끗하게 광택을 내고 있다.

2021년 안동 향촉대 현황

금액	소속. 이름	합계	비고
2백만원	(翼)재용–대종회 고문	2,000,000	
1백만원	(翼)석한 – 대종회장 (郡)준회–파종회장 (按)형남–파종회장	3,000,000	
5십만원	(書)파종회, 안동김씨골프회, 천공석재	1,500,000	
3십만원	문영공종회 (典)흥식–파종회장 (提)태헌–파종회장	900,000	
2십만원	판서공종회, 안동본연회 (郡)파종회, 재옥 (典)춘교 · 관교 (文)파종회 (提)파종회 (按)파종회 (翼)파종회, 재영, 재남, 수원참의공종중 (正)태석	2,800,000	
1십만원	괴산종친회, (郡)양천종중, 광탄종중, 장안종중, 태원, 일수 (典)화성정남종친회 (副)파종회, 춘식 (文)영환, 윤만 (都)봉회 (按)판교공종회, 영만, 선회, 태성, 용주, 봉진, 태영, 사부 (翼)전첨공종회, 강릉주부공종회, 영화, 재원, 태용, 태정, 태회, 정묵(대구), 정묵(하동)	2,900,000	
5만원	(翼)이계화(안동부녀회)	50,000	
	합계	13,150,000	

물품 찬조 현황	
(翼) 석한 대종회장	5백만원 상당 마스크 등
(翼) 용세 (신평양조장)	제주(祭酒) 2박스(1박스 20개) = 능동1, 회곡1
안렴사공파종회	스텐레스 분정판 2set (능동1, 회곡1)

물품 찬조 현황	
안동종친회 부녀회	능동 충렬공제위 제수
안동종친회 부녀회	능동재사 청소 및 제기 광택 작업

文英公(諱 恂)享祀 奉享

2021년 11월 11일(음 10월 7일) 목요일 오전11시 안양시 관양동 文英公 할아버님의 묘역에서 신축년 歲一祀가 奉享되였다. 文英公 할아버님은 1258年(고종45年)에 태어나 1321年(충숙왕 08年) 08월 21일에 64세로 몰하셨으니 금년은 할아버님께서 몰하신지 700주년 되는 해이다.

문영공의 아버지는 안동김씨의 중시조 충렬공 김방경(忠烈公 金方慶)이요 어머니 냉평국대부인 죽주박씨(冷平國大夫人 竹州朴氏,)와의 사이에 셋째 아들로 태어나셨으니 형님으로는 판서공 김선(判書公 金愃)과 도첨의공 김흔(都僉議公 金忻) 동생으로는 사사공 김론(司事公 金惀)과 세계가 끊긴 막내 김돈(金惇)이 있다.

부인은 제평군부인 양천허씨(齊平郡夫人 陽川許氏,1265년~1332년, 첨의중찬(僉議中贊) 허공(許珙)의 둘째따님)로 4남 3녀를 두었으니

첫째 아들은 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 문숙공(文肅公) 김영돈(金永暾)이요

둘째 아들은 상서(尙書) 김영휘(金永暉)이며

셋째 아들은 출가한 자은사(慈恩師 禪師) 김사순(金思順)요

넷째 아들은 영삼사사공 상락후(上洛侯) 정간공(貞簡公) 김영후(金永煦)이다.

첫째 딸은 서원정씨[西原鄭氏:청주정씨(淸州鄭氏)] 정책(鄭幘)이요

둘째 딸은 남포백씨[藍浦白氏,상당백씨(上黨白氏),청주백씨(淸州白氏)] 백이정(白頤正)이고

셋째 딸은 별리가불화(別里哥不花)로 元의 左承相 아홀반(阿忽反)의 아들이다.

在永 文英公宗會長을 비롯하여 榮萬 명예회장 그리고 錫漢 大宗會長 등 종친 120여분의 참석으로 묘소에서 세일사를 정갈하게 진행한 가운데 숭조 함양의 자리를 빛내었으며 錫漢 대종회장의 직일평에 이어 음력 10월 9일 충렬공 할아버님 향사에도 개인별로 참제를 바란다는 인사가 있었다. 在永 會長은 인사말에서 文英公 할아버님 享祀에 參祭하여 주신 많은 종친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난 1년간 종사의 중요사항을 공지로 안내하였으며, 이어서 재실인 敬慕齋의 외부에서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개인별로 준비한 식사를 나누었으며, 이날, 문영공종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참석한 종친분들께 드리며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주요 分定은 다음과 같다. 初獻官 亨南(서울) 按廉使公派 派宗會長, 亞獻官 興植 (廣州) 典書公派 派宗會長, 終獻官 潤萬(서울) 文溫公派 派宗會長, 執禮 泰喆 (翼 수원), 大祝 容元 (按 세종), 贊人 泰信 (翼 서울), 陳設 榮秀 (翼 의정부), 司樽 坪應 (提 괴산), 奉爐 亨植 (翼 안산), 奉香 鳳振 (按 분당), 奉爵 泰連 (翼 인천), 奠爵 在權 (翼 수원), 時到 奎元 (提 괴산),直日 錫漢 (翼 서울)

– 대종회부총장 김태철 –

전서공(典書公) 시제(時祭) 참석

11월 5일은 음력으로 10월 1일 정사(丁巳)일이었다. 우리 안동(安東)김씨 전서공(典書公)파에서는 파조(派祖)이신 성(成)자 목(牧)자 조상님의 제사를 10월 초 정일(丁日)에 올려 드린다. 따라서 이번에는 예년보다 조금 이른 5일에 거행되었다. 예전에 고향 전의면에 들릴 때면, 가능한한 학당리 파조(派祖)님 묘소에 참배를 하고 갔는데, 올해에는 최초로 제례에 직접 참가하였다.

언제나 파조(派祖)님 묘소에 들릴 때마다, 전서(典書) 뜻에 대한 의문이 떠올려졌었다. 전서(典書) 직책은 다른 성씨의 족보에서도 매우 흔하게 등장하는데, 어렸을 적 어르신들께 여쭈어 봐도 대충 고려시대 때의 벼슬이름이라고만 하셨었다. 확인해 보니 서기 995년, 고려 성종 시기에 현재의 내각에 해당하는 이부 · 병부 · 호부 · 형부 · 예부 · 공부의 6부 체제가 갖추어졌고, 이 6부의 장을 상서(尙書)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1308년 충선왕 때에는 몽고의 간섭으로 기존 6부가 선부(選部) · 민부(民部) · 언부(讞部)로 개편되면서 각 부의 장을 상서(尙書)가 아닌 전서(典書)라고 하여, 최초로 전서(典書) 관직명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다가 1389년, 공양왕 때에 다시 반원(反元) 정책으로 이조 · 호조 · 예조 · 병조 · 형조 · 공조의 6조로 재정비되었고, 이 때 파조(派祖)님께서는 공조(工曹) 전서(典書) 직책을 수행하시었으니, 지금으로 치면 국토교통부 장관직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례는 김흥식 전서공파 회장님의 초헌(初獻)으로 시작되었고 각 소종계의 대표분들이 아헌(亞獻) 삼헌(三獻) 또 독축(讀祝) 등을 담당하셨다. 전서공님의 5대손 김구년(龜年) 할아버님은 사수(師秀), 사준(師俊), 사철(師哲), 사민(師敏), 사우(師友) 다섯분의 아드님을 두셨는데, 이분들 후손들의 대표자께서 오늘 모이신 것이다. 특히 후손들 이름 항렬상으로 나는 태(泰)자의 수(水)항렬인데, 벌써 식(植)-용(容)-교(敎)-종(鍾)-우(雨) 항렬까지 내려가서 교((敎)자 항렬 분께서 독축(讀祝)을 해 주셨다.

정성으로 제례를 올린 뒤에는 정기 회의가 있었다. 이번에 새로 총무 역할을 하시게 된 태영 형님이 핵심 사안을 보고해 주었고, 총무에서 감사로 임원을 바꾼 성회 대부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다. 앞으로의 계획 중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 안이 제기되었는데, 재실(齋室)을 보수한다는 사실이 가슴에 와 닿았다. 전국에 산재한 안동김씨 사당 중에서도 포천의 김응하(應河) 장군 사당, 김시민(時敏) 장군 사당, 양곡리의 양모재(養慕齋) 등에 비해 규모가 작고 또 한옥이 아니어서 안타까웠는데 이제 어엿한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총무님은 현재 서울 역사박물관에서는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 제작을 감독하셨던 김익정(益精) 할아버님의 공적이 전시되고 있으니, 많이 가 보라는 제안을 들었는데 조만간 박물관에 가기 위한 스케줄을 잡았다. 또한 젊은이들과 초 · 중 · 고교생 후손들에게도 조상님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소개하고 교육을 하여야 하는데, 무조건 오지 않는다고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하겠다는 당위성도 밀려왔다.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전문연구원 김태구 –

2021년 문온공파 정기총회 및 금수단 세향 거행

문온공파종회는 2021년 10월 17일(세째주 일요일)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558 금수단[양간공 승택(承澤), 낙랑국부인 경주김씨, 상락군 묘(昴), 삼한국부인 여흥민씨, 문온공 구용(九容), 해평군부인 해평윤씨, 당성군부인 남양홍씨, 문온공 민사평(閔思平), 언양군부인 언양김씨] 및 가양리 산240-6에서 성천도호부사공 명리(明理), 계림군부인 경주이씨에 대한 세향이 있었다.

이 날 세향은 근 2년간 창궐하고 있는 C-19에 대한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예년과는 달리 참석 종인의 수를 20명 선으로 제한하고 절차도 간소화하여 시행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회장단의 심사숙고 과정을 거쳤으나 할아버님, 할머님께 대한 죄스런 마음은 금할 길이 없었다. 절차상 세향에 앞서 정기총회도 개최하였는바 이날 정기총회 및 세향의 내용은 문온공파종회 회장 인사말로 가름한다.

2021년 문온공파종회 정기총회 및 금수단 세향에 즈음하여

지난 1년 동안 사랑하고 존경하옵는 우리 문온공파 종친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C-19 4단계가 발령되어 연장에 연장을 거듭한지도 벌써 수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은 물론 국가의 경제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 문중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방침에 부응하여 각종 회의와 모임을 자제하였습니다. 혹 이번 정기총회 전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는 개최할 수 있을까, 세향은 정상적으로 올릴 수 있을까 마음 조리며 지켜보았습니다만 역시 C-19 4단계 연장 발표로 무산 또는 축소운영이 불가피하게 되는 저간의 사정이 그저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하고 싶은 일은 있었지만 한일이 거의 없는 그런 1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지나간 1년을 리뷰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면...

첫째, 금수단(金水壇) 주변 모란동산[牧丹園]에 목단(牧丹)심기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 모란동산 조성사업은 1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전개되어 명실공히 명품(名品) 모란동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둘째, 금수단 제절 복토 · 확장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제절이 비좁아 총회나 세향을 올리기에도 다소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장대석을 기준으로 10m 이상으로 넓혀 금수단의 기본골격을 완성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복토할 흙을 마련하는 일이었는데 계만(桂萬) 부회장의 수고로 100여차 분량의 양질의 흙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금수단 일원은 포천시 둘레길 조성사업과 경기문화재단의 경흥옛길(서울~함흥~경흥) 복원사업으로 포천시민뿐 아니라 전국의 시인묵객, 역사 · 지리학자, 트래킹 마니아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경기 북부의 중심 휴식처 및 역사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척약재학음집(惕若齋學吟集)』 국역사업은 위원장이신 영환(榮煥) 고문을 필두로 『척약재학음집』추진위원회 및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안동대학교 하정승(河政承) 한문학과 교수에 의해 상 · 하권 번역과 탈초 · 교정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문중사(門中史)를 반영하는 교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예상보다 많이 늦어진 내년 상반기 중에 발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종 2년(1400) 부사공 명리(明理) 할아버님께서 초간본을 간행한 이후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간행이 이었으나 모두가 원문본 간행이었고, 국역본은 1997년 울산대 성범중(成範重) 교수의 『惕若齋 金九容의 文學世界』가 있었으나 문중사를 반영하지 못한 '옥에 티'같은 흠이 있었는바 이번 『척약재학음집』 국역사업은 이런 흠결마저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마무리해야 할 일은 문온공파회관 301호를 주택용으로의 용도변경과 401호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401호는 현 세입자가 다행히 이의없이 전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용도에 맞는 월세를 주기로 하였으나 마땅치 못할 경우에는 월세 10만원 대신 문온공파종회 사무실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수단 명의 이전 건은 현재 다수의 명의자로부터 별제공종중으로의 명의 변경이 우선 선결과제입니다. 이 선결과제가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로 별제공종중과 합동으로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21년 금수단 · 가양리 세향은 C-19 4단계 정부방침에 맞춰 축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임원 및 묘하 종친을 위주로 개별참석 하시되 권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물은 주(酒) · 과(菓) · 포(脯)로 한정하고, 과일은 오색과실 조(棗) · 율(栗) · 시(柿) · 이(梨), 사과로 하며, 묘전에서 음복은 하되 식사는 지정된 식당에서 삼삼오오 나누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향 때가 되면 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별제공종중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온공파 종친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조상님들의 가호로 행복과 안녕이 함께 하실 것을 두손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7

문온공파종회 회장 김윤만

정간공, 영삼사사공, 안렴사공 3위 시제 봉향

2021년 11월 9일 화요일 (음력 10월 5일) 오전 11시 청주시 오창읍 모정리 영모재에서 정간공(휘 영후), 영삼사사공(휘 천), 안렴사공(휘 사렴) 3위 시제를 안동김씨대종회 석한 회장님, 문영공종회 재영 회장님, 제학공파종회 태헌 회장님, 안렴사공파종회 형남 회장님, 익원공파종회 재남 회장님 등 80여명의 종인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찬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햇살이 비치고 그야말로 사우사청(乍雨乍晴)의 변화무쌍한 날씨임에도 종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정성을 다해 함께 의식의 예를 다했다.

시제를 마친후에는 종인들이 모여 오찬을 겸한 정담을 나누고 내년을 기약하였다.

– 김순영(사진작가) –

【헌관 분방기】

祭位	정간공(휘 영후)	영삼사사공(휘 천)	안렴사공(휘 사렴)
초헌관	(按)형남 파종회장	(翼)석한 대종회장	(按)재명 이사
아헌관	(書)상호 고문	(按)용원 이사	(翼)재남 파종회장
종헌관	(提)태헌 파종회장	(翼)재화	(按)명식

문숙공(諱 永暾), 상락백공(諱 縝), 제학공(諱 益達) 세일사 봉행

2021.11.10.(음10.6)오전10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산77-12번지 소재 문숙공(휘 영돈), 상락백공(휘 진), 제학공(휘 익달)의 초혼묘를 완공하고 묘제를 지내려하였으나 몇일간 내린 비로 묘제를 지낼 수 없어서 같은 곳 198-33소재 영모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50여명의 종인들이 세일사를 봉행하였으며 이어진 총회에서 2021년 결산보고 및 2022년 예산안 보고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태헌 회장의 임기만료로 임원선출 건을 상정 제학공 회장에 규원 사무국장을 선출하고 감사는 평응, 운철을 유임 사무국장은 회장 지명으로 총회를 마쳤습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참석해주신 종인들의 숭조정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수와 제향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솔선수범 해주신 병천 종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향은 일사분란하게 분방과 순조로운 진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품격있고 엄숙하게 진행 되었습니다. 분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위(祭位) : 문숙공(諱 永暾), 상락백공(諱 縝), 제학공(諱 益達)
- 초헌관 泰憲(부평공) • 아헌관 德應(부평공) • 종헌관 壯應(수문장공)

제위(祭位) : 사간공(諱 顧), 감찰공(諱 盟廉), 주부공(諱 哲鈞), 승지공(諱 壽亨)
- 초헌관 泰完(생원공) • 아헌관 泰鎭(충익공) • 종헌관 萬應(생원공)
- 집례 奎元(승지공) • 찬인 漢鏞(비안공) • 대축 容恒(승지공)
- 좌집사 坪應(교관공) • 우집사 倫植(교관공) • 사준 在三(교관공)
- 전작 在明(교관공) • 직일 南應(교관공)

– 김규원 제학공파 사무국장 –

2021년 요동백 충무공 추계 제향 봉행

2021. 9. 26 (음력 8월20일 丁丑)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산 1-1 소재 포충사에서 요동백 충무공 김응하 장군 추계 제향을 봉행하였다.

충무공 김응하 장군은 안동김씨 중시조 충렬공(휘 방경) 11세손, 부사공(휘 천순) 8세손으로 1619년 명나라의 원병 요청에 따라 조선군 좌영장으로 원병에 참여하시어 요동 심하 전투에서 후금의 군대에 맞서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하셨다. 철원군 유림에서는 매년 봄 2월 중정일과 가을 8월 중정일에 장군의 넋을 위로하고 업적을 추모하는 제례를 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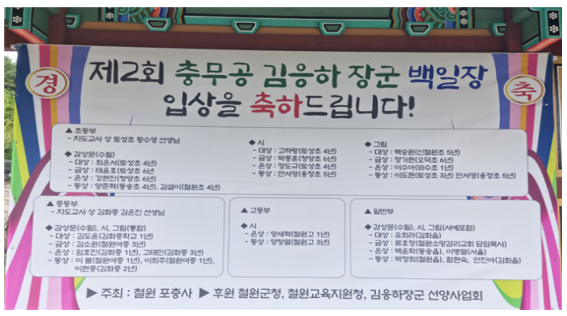
이날 초헌관은 철원군수 이현종, 아헌관은 안동김씨 부사공파 회장 원호, 종헌관은 철원군 의회 부의장 박기준이 헌작을 하였다.

봉향에 앞서 충무공의 충의와 군인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2021.7.1~8.27 철원 포충사에서 주최한 '제2회 충무공 김응하 장군 백일장'에 응모한 작품은 감상문(수필 부문), 시, 그림 등 90여 작품 중 이를 초등부, 중등부 및 일반부로 나누어 32개의 우수 작품을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선정하여 상금과 상장을 시상하였다.

입상자에 대한 시상은 포충사 원장 전현일, 철원교육지청 교육장을 대리하여 장학관 께서 수여해 주셨다.

끝으로 금번 제향에 화환을 보내주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대종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부사공파 회장 김원호 –



정의공(휘 철) 향사 봉행

안동김씨 정의공파종회에서는 2021년11월 7일(일요일)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432번지에 위치한 정의공(正儀公 諱 哲) 사적비에서 김태석 회장님을 비롯한 종친들이 모여 시제를 올렸습니다. 초헌관은 김수호 파종회 총무가 맡고, 아헌관에 김태한 종친이, 종헌관은 김수선 종친이 헌작 하였습니다. 시제를 마치고 음복을 하면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기간 모임을 못하였기에 내년 총회개최 관련과 그리고 토지 매각관계 등 여러 현안문제를 논의 한 후 해산 하였습니다. 이번에 대종회에서 금일봉을 보내 주셨습니다. 김석한 대종회장님께 감사드리며 대종회 임원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 김수호 정의공파 총무 –

충무공 김시민 장군 467주년 탄신제 개최

2021년 9월 25일(토) 천안 예술의 전당에서 충무공 김시민 장군 467주년 탄신제 및 문화제를 개최했다. 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천안시에서 후원한 이번 기념식에서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충절과 호국정신을 선양하고 충 · 효 · 예의 문화를 전승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9월 11일(토)에는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김시민길 27-1 생가지 터에서 안동김씨제학공파종회와 충무공기념사업회 공동주관으로 고유제를 올렸다. 김법혜 기념사업회 회장, 유경득 선문대학교 부총장(기념사업회 공동대표), 문진석 천안지역구 국회의원, 김영옥 동남구청장,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 등이 참석했으며 제학공파종회에서는 김태헌회장, 김규원총무, 김용항, 김한용, 김탁응, 김운철, 김재왕, 김태명 등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여 충무공의 위업을 기리며 고유제를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김시민 장군은 1554년(명종 9년) 지금의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잣밭마을(충청도 목천현 백전)에서 태어나 1578년(선조 11년) 무과에 급제한 후 1592년 임진왜란 때 진주목사로 왜군의 진주성 침공에 맞서 진주대첩을 이끈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양승조 충남지사와 천안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예 공모전 시상과 충무공 김시민장군을 주제로 한 특별 연극, 탄신제를 축하하는 연주 및 성악 공연 등이 펼쳐졌다.

기념식사에서 양 지사는 "진주대첩은 김시민 장군의 지도력과 조선 백성의 단결이 이뤄낸 위대한 업적"이라며 "장군과 선조들이 보여주신 국난 극복과 통합의 정신을 본받아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지사는 "안타깝게도 김시민 장군을 생각할 때 경남 진주를 떠올리는 사람은 많아도 충남 천안을 떠올리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다"면서 "충남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과 역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우리 도민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유제 기념사진

- 초헌관 김태헌 제학공파종회 회장(중앙)
- 아헌관 김영옥 천안시 동남구청장(우측)
- 종헌관 유경득 선문대학교 부총장(좌측)

– 충무공김시민기념사업회 회장 김태완 –

김정훈학생, 제15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육상경기 금 · 은메달 쾌거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전북 익산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제15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충청남도 고등부 육상대표 선수로 참가한 천안 청수고등학교 3학년 김정훈학생이 육상부문 200m와 100m에 각각 출전하여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정훈 군은 충렬공(휘 방경)의 후손이며, 파조 제학공(휘 익달), 안악군수를 지낸 죽계공(휘 계종)의 후손인 김태견씨의 아들이다.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선수생활을 시작한 늦깍기 지만 이번 대회에서 훌륭한 성적을 기록한 것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장애인육상연맹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목별 분산 및 비대면 대회로 개최하였다.

– 제학공파 수도권종회 총무 김운철 –

헌성금(휘경동 대종회관 리모델링공사)

· 500만원 : (翼)석한 대종회장, 문영공종회
· 300만원 : (按)형남 파종회장 (翼)파종회
· 200만원 : (郡)준회 파종회장 (典)파종회
(翼)재용 대종회고문, 수원참의공종중 (書)파종회
· 100만원 : 판서공종회 (郡)파종회, 양천종중회 (典)관교 대종회부회장
(副)원호 파종회장 (文)파종회, 영환 안사연 회장 (提)파종회
(翼)재남 파종회장
· 50만원 : (郡)재근
· 30만원 : (郡)재구
· 20만원 : (按)동묵 (翼)태용, 태신, 수찬
· 10만원 : (大)태식 (提)정식, 정응 (?)영주

익원공파 전첨공(휘 종윤) 세일사 봉향

2021년. 10. 17(음력 9.12. 일요일) 오전11시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선영에서 안동김씨 익원공파 전첨공(諱 宗潤), 감찰공(諱 琛), 청안현감공(諱 善孫), 형조좌랑공(諱 淡) 선조님 4位의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이날 세일사에는 대종회장 석한님, 동회, 일회, 진서, 연묵 내외분, 재섭, 의정부 재훈, 기회 등 후손들이 참석했고, 방손 參祀者로 재영 문영공종회 회장님, 선회 안렴사공파종회 전임 회장님, 재남 익원공파종회 회장님, 태성 청주종친회 회장님, 영수 익원공 사무국장님, 종빈 참의공 회장님, 대종회 부총장 태철님, (제)한용 청주종친회 총무님, 그리고 전첨공 종친회 재택 회장님 내외분과 총무 충식 내외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세일사 후 석한 대종회장과 재택 전첨공 회장의 인사 말씀이 있었으며, 정겨운 점심 식사의 시간을 갖았다. 주요 분정은 아래와 같다.
초헌관 기회, 아헌관 재남 익원공파종회장, 종헌관 태성 청주종친회장, 집례 태철 대종회 사무부총장, 축관 재영 문영공종회장, 좌집사 일회, 우집사 종빈. 사준. 동회

– 전첨공종회 총무 김충식 –

익원공파 충민공(忠愍公)종회 선조님 세일사 봉향

2021년 10월 23일(음력 9.18)토요일 충남 논산시 상월면 산성1길 5, 충민사(忠愍祠)에서 30여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과공(司果公 휘 潔). 전력부위(展力副尉)를 역임하신 충의위(忠義衛 휘 承碩), 청주목사를 지내신 충민공(忠愍公 휘 欽) 3위를 비롯하여 여러 조상님들의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산신제는 인회 · 수희가 맡고 초헌관은 삼회, 아헌관에 태인, 종헌관에 재규가 헌작을 올렸으며 축관은 수희, 좌집사 인회, 우집사 용재, 사준은 재택이 담당했다. 이날 시제를 마치고 충민공종친회 총회를 개최하여 재관회장님의 인사말씀과 수희총무의 후임으로 태인을 신임 총무로 선출한 후 점심식사를 하며 종친간의 돈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는 재관회장님과 아들 정회를 비롯한 재규, 수찬 내외분, 용재, 삼회, 인회, 태인 내외, 총무 수희 내외분, 재택 내외분 등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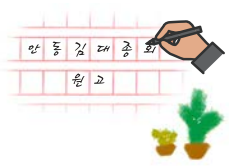
– 충민공종회총무 김태인 –

김봉회 명예회장 '2021 명예로운 안동인상' 수상

경상북도 안동시는 출향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로운 안동인상'에 인쇄산업발전에 기여한 김봉회(82) 동서문화 대표 (안동김씨대종회 명예회장)를 선정하여 지난 10월 5일 '2021 명예로운 안동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10월 3일 안동의 날 기념행사 때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기념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지난 5일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관계자 일부와 안동종친회의 김동수 안동유사, 김재교 안동종친회장, 김광회 안동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개최됐다.

이에 앞서 9월 25일에는 천안의 사단법인 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회장 김법혜)에서 대한민국 호국충절 선양봉사상을 수상하시기도 했다.

대종회보 원고를 모집합니다.



안동김씨대종회에서는 대종회보(종보)를 년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각 파종회와 종친들께서는 종인들의 미담이나 선조님들의 사료 발굴자료, 현대를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 자랑하고 싶은 내용 등 다양한 자료를 싣고자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출마감 :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1면 상단 참조)
◎ 자료제출 : 원고와 사진 등
◎ 제 출 처 : 대종회사무처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31
◎ 연 락 처 : 전화 (02)2244–3717, (02)2244–3710
팩스 (02)2243–1073

안동김씨 경북 북부지역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 재직자 모임 “본연회(本然會)” 창립

2020년 11월 4일 저녁, 안동시내 소재의 한 식당에 종인 20여명이 모였다. 이 날 모임은 김철회, 전 농협안동시지부장, 김용덕, 국토정보공사 안동지사장, 김용준, 전 대종회 감사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안동인근지역의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종인들의 모임을 결성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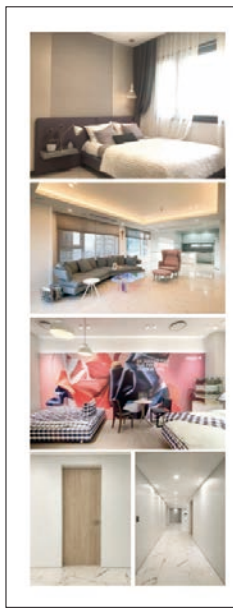
이 날 초대회장에 김철회, 부회장에 김용덕, 김미화를 만장일치로 추대했고, 사무국장에 김태홍을 임명하였으며, 김상묵과 김재술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회의 명칭은 “본연회(本然會)”로 정하였는데, 본연(本然)은 “본래 그대로의 타고난 상태”라는 사전적 뜻과 우리 중시조이신 충렬공 김방경의 자(字)에서 가져온 것으로, 본연회가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안동김씨 종인 모임임을 상징하는 의미이다. 창립 모임 이후 세계적 재난사태인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그 간 모임을 갖지 않았다가 창립 7개월만인 7월 16일 저녁 안동시 소재의 안동김씨회관에서 첫 모임을 개최하였다.

김재교 안동종친회장은 “지역 내 여러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종인들의 모임인 본연회의 창립과 첫 모임 개최를 축하드린다.”라는 인사와 찬조금을 전달하였으며, 김철회 회장은 “본연회 창립총회 이후 첫 모임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본연회를 통해 지역 내에서 결집된 힘을 가지고 숭조사업에 앞장서며 회원 간 친목도모와 화합을 다지는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본연회 사무국장 김태홍 –

본연회(本然會) 회원 명부

연번	세(世)	파(派)	성명	근무처	비고
1	23	익원	김상묵	前 안동경찰서	고문
2	24	〃	김재술	안동시설관리공단 경복지본부장	〃
3	〃	〃	김재우	안동경찰서	
4	25	〃	김광회	안동종친회 사무국장	특별회원
5	〃	도평	김연수	안동개인택시 지부장	
6	〃	익원	김철회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사업단장	회장
7	26	도평	김태성	前 새의성농협	
8	〃	익원	김태성	안동시청	
9	〃	도평	김태홍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사무국장
10	27	익원	김성한	前 안동로타리클럽 회장	
11	〃	〃	김준식	안동시설관리공단	
12	〃	〃	김정수	안동와룡농협	감사
13	〃	정의	김현식	안동시청	감사
14	〃	익원	김진식	동안동농협	
15	〃	〃	김민식	안동시보건소	
16	〃	〃	김정식	서안동농협	
17	28	〃	김용준	경북IN뉴스 본부장	
18	〃	〃	김용덕	국토정보공사 안동지사장	부회장
19	〃	〃	김기덕	안동공예가협회 이사	
20	〃	〃	김미화	농협안동시지부 부지부장	부회장
21	〃	〃	김희철	성균관청년유도회 중앙회부회장	
22	〃	〃	김윤길	안동시설관리공단	
23	〃	〃	김용태	경북지방경찰청	
24	〃	〃	김용필	안동경찰서	
25	30	〃	김종현	경북북부건설사업소	
예비회원명부					
26	23	도평	김신묵	前 의성군청	
27	25	〃	김태회	의성군청	
28	〃	〃	김현수	의성군청	
29	〃	〃	김준회	의성군청	
30	27	〃	김진상	경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31	〃	〃	김준상	경북도청(현 해외파견)	
32			김민성	경북향교재단	



주거/사무실/상업 공간 인테리어
A done Design
에이던 디자인
대표 / 실장 : 김 태 환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7길 13,
오피스 B동 1217호
(문정동, 힐스테이트에코송파)
TEL : 02-6956-3237
FAX : 02-6956-3233
E-mail : adone-design@naver.com
www.adone-design.com

(주)兩白 문화재
문화재수리/한옥/사찰/제실
보수단청업 01-16-0042호

대표이사 김 진 식
(충렬공 27세손, 익원공파)
문화재기능자 대목수 제 4459호
한국미술협회 회원
한국장승진흥회 이사
경북 영주시 하망동 325-19(3F)
TEL. (054)636-1239
C·P. 010-3507-1239
E-mail : ddundol@hanmail.net

금융감독원 등록업체
YeolRin 열린손해사정법인
www.yeolrin.co.kr
손해사정사 김 재 민
전)삼성화재 보상과 근무
우)08023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71 (세양빌딩 2F)
Tel : 02-855-4973 (직통)FAX : 0504-252-8845
M : 010-3362-8845 E-mail : j.min.kim@yeolrin.co.kr
교통사고시 소득, 과실, 장해, 향후치료비, 쟁점사항 등이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
산재사고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는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배상청구관계검토
교통사고시 고절이나 인대파열로 수술한 경우 장해보험금(지급율 3%~100% 또는 1급~6급)을 검토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장해진단서 발급방식이 Mcbride식, AMA식, 자동차 손해 배상보장법, 국가배상법 등 상이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각종암 · 화재재해 · 교통사고 · 후유장해 · 국가유공자 국가장애인등록상담 · 산재사고

[BBS 뉴스와 사람들] 불교방송 정통 시사 대담 프로그램

안동김씨역사연구회 김영환 회장

- 진행 : 김봉래 기자 / BBS 전법후원국장
- 출연 : 김영환 안동김씨역사연구회 회장
- 방송 : 2021년 8월 22일(일요일) 저녁 6시20분(BBS 라디오)
- 입력 : 2021년 8월 25. 17:11, 수정 2021.08.27 10:19

◆김봉래 : 우리 사회 명사들과 현안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BBS 뉴스와 사람들 진행을 맡은 김봉래입니다. E.H. Carr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오늘을 사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생존과도 직결된 부분이 바로 역사죠. 하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입장과 행동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만큼 역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망을 하기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아간 선조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발길을 조심스럽게 내딛는 자세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BBS 뉴스와 사람들 오늘은 문중 가운데서는 드물게 역사 연구 모임을 가지고 꾸준히 성과를 내는 곳이죠, 안동김씨역사연구회의 김영환 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김봉래 :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안동김씨역사연구회 김영환 회장님을 불교방송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환 : 네. 안녕하십니까.

◆김봉래 : 우리 김영환 회장님은 충렬공김방경기념사업회 회장도 맡고 계시죠. 먼저 안동김씨역사연구회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 네. 안녕하십니까. 안동김씨역사연구회를 맡고 있는 김영환입니다. 안동김씨역사연구회는 원래 안동김씨 문중사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임으로 2001년도에 출발했습니다.

◆김봉래 : 네. 그렇군요. 결성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결성하게 되었는지요.

◈김영환 : 2001년 11월 11일이었던 것 같아요. 안동김씨 홈페이지가 개설을 했었는데요, 그 때 홈페이지를 즐겨 찾는 8명이 모여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홈페이지에 올릴 자료를 찾는 게 주목적이었는데, 기록이 잘못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을 고쳐나가는 재미로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김봉래 : 우선 안동김씨 하면 떠오르는 게 조선시대 말에 세도정치 아니겠습니까.

◈김영환 : 우리 안동김씨는 고려 충렬왕 때 삼별초난을 정벌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일본을 원정하고 수상까지 역임하신 김방경 할아버님을 중시조로 하고 있고요. 신안동김씨는 병자호란 때 김상헌 선생을 비롯해 그 이후에 세력이 커져서 조선 말기에 소위 세칭 세도정치를 한 대단한 집안이죠. 저희는 안동김씨입니다.

◆김봉래 : 아. 그렇군요. 안동김씨와 신안동김씨 전혀 다른 집안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럼 우선 안동김씨 집안 인물 가운데 저희가 알만한 분들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영환 :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통 충무공하면 이순신 장군만 생각하죠. 조선시대 충무공 시호를 받으신 분이 아홉 분이나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적과의 전투 속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전사하신 분에게만 영의정에 추증(追贈)되었어요. 그 분이 충무공 아홉 분 중에 단 세 분밖에 안 되십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 한 분이고요, 나머지 두 분이 우리 안동김씨입니다. 한 분은 임진왜란 때 진주대첩의 주인공이신 충무공 김시민 장군이시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광해군 때 명나라의 요청으로 지금의 만주 쪽에 파병된 심양 쪽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신 충무공 김응하 장군. 두 분 다 영의정에 추증되셨고 충무공의 시호를 받으신 분입니다. 근세에 인물 중에서 여러분 계십니다만 한 분만 꼽으면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저희 집안이십니다.

◆김봉래 : 아. 그렇군요. 백범 김구 선생님. 독립운동가이시고요. 안동김씨인 것은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일단 안동김씨역사연구회가 그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김영환 :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요. 2012년이 안동김씨 중시조이신 충렬공 김방경 할아버님의 탄신 8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신 80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거행했었는데요. 충렬공 할아버님에 대한 삼별초 정벌이라든가 일본 정벌이라든가 그 분에 대한 논문이 산재했던 것을 모아서 충렬공 논문집을 간행을 했고요. 이 때 기념식에 맞추어서 서울과 안동에서 학술대회를 했었는데, 충렬공 할아버지에 대한 자료가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두 모아서 있는 그대로 조금도 가감 없이 〈충렬공 김방경 자료 집성〉이라는 전 3권의 대작을 발간했습니다.

◆김봉래 : 그렇군요. 그 밖에 다른 업적들도 있으시죠.

◈김영환 : 우리 안동김씨역사연구회에서는 우리 선조님들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충렬공 할아버지가 여몽 연합군을 이끌고 일본 정벌을 두 번이나 하셨거든요. 대마도를 거쳐서 이끼섬, 하까다, 지금의 후쿠오카 지역을 정벌을 하셨는데, 이 루트를 따라가는 여행을 비롯해서 이번에 간행한 금석집첩을 따라가는 여행, 그런 식으로 일본 답사가 세 번 있었고요. 또 백범 김구 선생님의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충칭까지 여러 번 옮겨 다녔지 않습니까. 그 여정을 따라가는 답사 또 우리 척약재 김구용 선조님이 고려 말에 중국에 유배를 가셨는데 그 유배길을 따라 찾아가는 여행등, 해서 중국 답사도 네 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금석집첩 안동김씨 편을 영인해서 원본 그대로 2권 1질, 100질 한정판으로 발행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책과 함께 번역본은 300권을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봉래 : 답사까지 하시고 굉장히 전문적인 단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은 사실은 금석집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우선 금석집첩이 어떠한 책인지 먼저 개관을 좀 해주실까요.

◈김영환 : 우선 이번에 간행된 금석집첩(金石集帖) 219권 중에서 우리 선조님에 관련된 자료만 28점을 찾아서 영인하여 만든 책입니다.

◆김봉래 : 그 책이 언제 어떻게 해서 발간이 됐던 책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김영환 : 금석집첩은 조선 영조 때 당시의 영의정을 지낸 김재로 선생님이 청풍김씨죠. 이 분의 노력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석집첩에 청풍김씨 비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김재

로 선생이 시작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호도 있는데, 아마 이분의 호가 아닐까 싶어서 김재로 선생께서 시작된 것 같은데, 아마 당시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금석문을 탁본해서 탁본첩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봉래 : 탁본첩이요.

◈김영환 : 한 100년 동안 시작되었어요. 왜냐하면 금석집첩을 보면 그 시대를 알 수 있거든요. 비석을 세운 날짜가 나오고 하니까. 한 100년 동안 작업을 해서 2,500권의 탁본을 오리고 붙여서 260여 책으로 만들어서 금석집첩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거니까 260권이면 어마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규장각이든지 왕실에 보관되어 있거나 후에 우리나라 국가기관이나 국립도서관에 있어야 할 텐데, 우리나라에는 전질이 없어요. 이 귀중한 책이. 어쩐 일인지 금석집첩 260권 중에서 219권이 일본 교토에 있는 교토국립대학 도서관에 있는 거예요.

◆김봉래 : 260책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김영환 : 우리나라에는 규장각에 딱 한 권이 있고요. 또 금석집첩과 같은 종류인데, 금석록이라든가 금석첩이라든가 정리된 것이 72책이 있긴 있어요. 같은 종입니다. 아마 그 때 탁본을 두 벌 떠서 두 권 만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규장각에 몇 개 있고요. 고려대학교 우당기념관에 있고요. 개인이 몇 권 가지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책 내용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밝혀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주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던 책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어요.

◆김봉래 : 그런데 이 귀중한 책이 왜 우리나라에는 없고 일본에는 있었을까요.

◈김영환 : 뭐 교토대학교에서 간행한 자료에 의하면 자기네가 1910년, 그러니까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1910년이 국치년인데, 그 때 구입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교토대 도서관에는 그 이후에 조선 말에 헌종 때인가요, 풍양조씨 조인영 집안에서 나온 책이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야 할 대상입니다.

◆김봉래 : 그러면 안동김씨역사연구회에서는 이 금석집첩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되셨는지요.

◈김영환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렬공 할아버지의 묘소가 안동에 있는데요, 안동에 가보면 앞뒤가 아주 반반한 백비 상태의 비석이 서 있습니다. 이게 임진왜란의 직후에 세운 비석인데, 이게 한 글자도 안 보이고 전혀 판독할 수 없는 그런 비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비를 탁본한 것이 바로 금석집첩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에는 교토대에 있는 것은 모르고 국사편찬위원회에 자료가 있다고 해서 국사편찬위원회에 가서 그 자료를 제공받아서 그 탁본을 해독하고 번역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충렬공김방경자료집성에 게재한 바 있고요. 또 아울러 문정공 김질 선조님의 비문도 지금 가보면, 이것은 한 600년 가까이 된 비석인데 다 마모되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해 내려오는 말로는 김질 할아버지 신도비문을 서거정 선생님이 지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보통 서거정 선생님 문집인 사가정집에 글이 있을 텐데 이상하게 그 문집에도 비문이 없는 거예요. 비문의 내용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금석집첩에 300년 전에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탁본이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똑같이 탈초하고 번역해서 경현문집에 싣게 되었습니다. 이 금석집첩을 간행하기 위해서 2019년 3월에 교토에 있는 교토대학 도서관에 제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회원들을 데리고. 그래서 이 때 금석집첩 219권을 실제 확인을 했고요. 우리가 이 탁본을 쓰겠다고 허락받아 우리 안동김씨 선조님들에 관련된 28점의 탁본을 추려서 원본 그대로 실물 크기의 영인본을 만들고 탁본 내용을 판독하고 번역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김봉래 : 네. 어떻게 보면 한일 양국 간의 문화교류 차원에서도 아주 귀중한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탁본첩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는지요.

◈김영환 : 묘비가 가장 많죠. 묘비에는 조선 왕릉의 왕릉비들도 있고요, 또 유명한 사대부들의 묘비, 신도비를 비롯해서 사적비, 유허비 같은 게 있습니다. 묘비로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유명한 선현들, 고위관료들의 탁본이 수록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글씨를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유명한 분들만 말씀드리면 신라 때 김생의 글씨를 집자한 비문도 있고요. 신라 말 고운 최치원 선생의 글씨, 신라 말에 유명한 명필이었던 영업스님의 글씨, 대감국사 탄연국사의 글씨도 금석집첩에서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조선시대 명필로 알려진 한석봉, 오준, 김희수-김로 부자, 송인, 안침, 이정영, 신익성 등 당대의 내로라하는 명필들을 볼 수 있어서 아마 서예사적으로도 굉장히 귀중한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봉래 : 아주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실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생각나시는 대로 중요한 비문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영환 : 가장 오래된 비문으로서는 신라 말에 비문이 있는데요, 최치원이 짓고 최치원 친필로 쓴 쌍계사 진감국사비. 이것은 지금 쌍계사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김봉래 :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많은 2,000여 점의 탁본 가운데 안동김씨 관련은 몇 점입니까.

◈김영환 : 28점인데요. 그 중에서 비문이 26점이고요. 한 점은 선조님이신 문영공(휘 순) 친필 비문인 바로 홍진국존비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명필이라고 하셔서 중국에서도 쓰신 비문도 있고 한데 지금 전해오는 게 거의 없어요. 홍진국존비도 없고요. 그런데 이 홍진국존비 탁본이 이 금석집첩에 들어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5대 명종 중에 하나라고 알려진 연복사 종에 양각으로 된 종명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26점의 비문들이 전국에 있는 것을 일일이 여덟 차례에 걸쳐서 답사해서 비석의 실물이 현존하는가 아니면 상태가 어떤가 일일이 확인을 해서 이 비문을 활자화해서 번역본에다가 현대문에 맞게 번역해서 실었습니다.

◆김봉래 :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금석집첩을 통해서 전문이 밝혀진 것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 책에서 주목할 것은 앞에서 말씀해주신 거 외에도 아주 많이 있죠.

◈김영환 : 예. 뭐 이것을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충렬공 할아버지의 백비로 되어 있던 것도 찾아냈고, 문정공 할아버지도 찾아냈다고 했고요. 저희 집안에서 영의정을 지내신 문경공 김수동 할아버지의 신도비도 양천에 있었어요. 옛날 기록에. 그런데 양천이 지금의 목동지구거든요. 목동지구 개발하면서 신도비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김봉래 : 신도비라는 게 뭡니까.

◈김영환 : 신도비라는 것은 그 분의 업적을 기록해서 묘소 입구에 세운 커다란 비석을 신도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동 개발할 때 없어져서 이 글을 지은 신용개 선생의 문집을 보고 다시 세웠는데 그 원본이 바로 금석집첩에 있는 거예요. 목동에 없어졌던 것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조해보니까 많이 달라요. 신용개 선생 문집에 있는 거하고. 또 지금 비무장지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한성부 좌윤공의 비문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동화사 홍진국존비라든지 실물이 없고 탁본도 완전한 것이 없어서 다른 탁본 관련 문헌에도 잘못 전해지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 금석집첩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확인할 수 있었죠.

◆김봉래 : 그러면 이 금석집첩에는 당시의 사회상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도 많겠죠.

◈김영환 :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충무공 김응하 할아버지의 사당

이 철원의 포충사에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우암 송시열 선생이 지은 묘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충무공 김응하 할아버지는 우리 안동김씨가 아니라 경주김씨라고 잘못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암 선생의 잘못인지 글씨로 유명한 박태유 선생이 썼는데 그 분이 잘못 썼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정공 비문도 그 유명한 서거정 선생의 문집에 없어요. 아마도 문정공 할아버지에 대한 비판 때문에 후손들이 뺐지 않나 싶고요. 또 몇몇 비에도 보면 우리 선조 중에서 무고로 역모에 몰린 분이 나중에 신원되었지만 그런 분이 계신데, 비석에 자손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우고 쪼아서 없앤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은 연구 대상이고요.

◆김봉래 : 그렇군요. 자. 이 금석집첩이 탁본인데 오류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요.

◈김영환 : 금석집첩이 탁본이지만 탁본 그대로 책을 만들 수 없으니까 이것을 조각조각 오려서 책을 만들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오류가 나왔죠. 홍진국존비 비문도 탁본에 보니까 한 글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문을 보면 가로 세로 딱 맞아야 하는데 한 글자가 비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 한 일(一) 자가 금석집첩에 빠져 있습니다. 오려 붙이면서 빠진 것 같아요.

◆김봉래 : 네. BBS 뉴스와 사람들 오늘은 안동김씨역사연구회 김영환 회장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김영환 회장님 오늘 금석집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거기에 불교 관련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좀 말씀을 덧붙여주실까요.

◈김영환 : 동화사에 가면요, 홍진국존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죠. 동화사 홍진국존비는 1298년인가 고려 충렬왕 때 세운 비석이에요. 현재 동화사에 가보면 홍진국존부도라고 알려진 보물로 지정된 부도만 있고 비석은 온 데 간 데 없어요. 이 홍진국존비도 주먹만한 파편 몇 조각만 전해 내려오고 있고요. 1800년대에 탁본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탁본은 없고 그 탁본을 찍은 사진만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1800년대 탁본을 뜰 때도 비석의 한 귀퉁이가 파손되어서 완전하지가 못해요. 우리나라에 금석문을 정리한 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조선금석총람이라든가 해동금석원 같은 책에도 홍진국존비의 자료가 오류가 많아요. 그러나 이 금석집첩에는 거의 그대로 글씨도 선명한 탁본이 있어서 그대로 복원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 그 탁본을 원상태로 출력한 것을 보시죠. 이게 1800년대에 탁본한 유정수본의 사진본이고요, 또 이것이 금속집첩에 있는 탁본을 저희가 오려 붙여서 실물 크기로 만든 겁니다. 현재 새로 탁본한 것 같이 아주 선명하죠?

◆김봉래 : 네. 안동김씨 집안에서 이렇게 역사연구를 꾸준히 해오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떤 것인가요.

◈김영환 : 글쎄요. 비결은 우리 회원들이 한 20년 넘도록 우리 문중사를 연구하면서 내 조상이라고 해서 미화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묻힌 자료와 잘못 알려진 자료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리하고자 했던 원칙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답사할 때 비용도 각자 회원이 부담했던 것을 원칙으로 했던 것도 하나의 비결이라고 할까요. 회원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한 편의 영화를 만들 듯이, 영화를 만들려면 조명, 음향 이렇듯이 종합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회원들이 참여해서 작품을 만든다는 것도 아마 비결이라고 하면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봉래 : 네. 그렇군요. 재능기부 참 좋은 겁니다. 특히 금석집첩을 발간하겠다 이렇게 발원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으셨는지요.

◈김영환 : 우리가 몰랐던 자료를 일본에서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참 그 중에서 우리 안동김씨 금석문만이라도 발간을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고요 또 이로 인해서 금석집첩에 관한 많은 연구와 관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불교계에서도 금석집첩 불교편을 발행해서 복원과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합니다. 송광사 대경스님이나 박물관장 고경스님도 많은 관심 갖고 계셔서 제가 이 책을 한 질을 보내드렸습니다. 원하는 문중이나 원하는 동화사 같은 데서 자료를 요청하면 제가 기꺼이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김봉래 : 자. 우리 김영환 회장님 앞으로 할 일,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김영환 : 올해는 저희 선조 중 척약재 김구용 선생의 문집 국역본을 간행 중에 있고요. 민간외교사절단 반크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 4대 목록을 작성해서 세계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는 누구나 다 잘 아는 한글, 직지, 팔만대장경이죠. 나머지 하나는 잘 몰라요.

◆김봉래 : 네. 저도 잘 모릅니다.

◈김영환 : 이 반크에서 선정한 것이 바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입니다.

◆김봉래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김영환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줄여서 강리도라고 합니다.

◆김봉래 : 혼일강리도.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더 연구를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회장님.

◈김영환 : 네. 이 강리도가 우리나라가 그린 동양 최초의 세계지도인데요. 태종 2년에, 1402년인가요 좌정승 김사형과 우정승 이무가 검상 이회에게 명해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1400년 초에는 유럽에서는 아프리카 대륙도 사하라 남쪽 사막 남쪽은 모를 때였어요. 아프리카 대륙의 희망봉이라든가 나일강의 원류까지도 강리도에는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강리도가 그려진 이후 한 80년이 지나서야 포르투갈의 디아스라는 분이 희망봉을 발견하게 되죠. 그 후에 한 10년 지나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요. 지중해 연안에 알렉산드리아라고 있는데 거기에 전설 속의 파로스 등대가 있다고 하는데 이 강리도에는 그려져 있는 거예요. 1300년도인가 지진으로 인해서 지중해로 빠졌다고 하는데 이게 높이가 100m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만 있고 실물은 없었는데, 뉴스에 보니까 며칠 전에 프랑스 해양 탐사대가 지중해 바다 속에서 이 파로스 등대를 실제를 찾아냈대요.

◆김봉래 : 네. 그래서 이 강리도의 복제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영환 : 네. 혼일강리역대국도 복원 작업에 정진할 거고요. 학자들이 논문에도 보면 태종의 명에 의해서 그렸다고 하는데 조선왕조실록에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양촌 권근 선생님이 발문을 썼는데 양촌 선생이 쓴 발문을 보면 거의 다 임금의 치적 찬양인데 이 강리도 발문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구할 대상이고요. 또 서역 지방이나 유럽, 아프리카의 지명이 당시 아랍어의 발음을 한자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어느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지명으로 밝혀내는 작업도 해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김봉래 :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은 반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김영환 : 네. 이 강리도도 중화사상으로 그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지도를 합쳐서 그렸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데 우리의 훌륭함을 폄하하는 글이 난무하고 있어요. 중국에 견주어서 우리나라 지도를 한 10배 정도 더 크게 그렸으니까 우리 중심의 지도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당시에 측량 기술이 없으니 중국지도, 일본지도, 유럽지도, 이런 것을 다 합해서 그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지도도 일본에 보관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 연구되지 않아서 이 복제사업을 계기로 해서 한 4천여 개가 넘는 세계의 지명연구와 우리가 자랑할 문화유산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문화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봉래 : 네. 김영환 회장님 혹시 불교와 인연이 있으신지요.

◈김영환 : 네. 저는 모태 불교신자입니다. 어렸을 때는 무엇 모르고 어머니를 따라다녔죠. 절에 가면 무섭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봉선사의 말사인 보광사에 가산선우스님 주석하고 있는데요. 이 절에서 한 15년간 제가 신도회장을 했습니다. 현재 가산스님과 함께 신흥무관학교와 이석영, 이회영 5형제 애국지사의 삶을 조명하는데 힘쓰고 있고요. 신흥무관학교 자금 중에 우리 보광사 재산도 들어갔습니다. 또한 보광사 인근에 있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암각문(巖刻文)의 문화재 지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봉래 : 네. 그렇군요. 혹시 우리 한국불교 종단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 안 계실까요.

◈김영환 :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불교 문화재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에 집중하다 보니 소프트웨어가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문화재 대부분이 불교 문화재 아닙니까. 이것을 보존하고 연구 개발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이러한 것이 널리 알려지는 것이 요즘 MZ 세대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김봉래 : 네. BBS 불교방송 같은 매체에도 당부하고 싶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 불교방송국이 정말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을 불자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불교 문화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문화강국으로서의 국민으로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불교방송을 많이 애청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봉래 : 네. 끝으로 회장님의 원력 내지는 계획을 소개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복원 사업에 여생을 받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문화를 지키고 찾아내고 바로 알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동김씨 역사연구회의 이념과 부합되는 일이니까요.

◆김봉래 : 네. 우리 김영환 회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 고맙습니다.

◆김봉래 : 지금까지 안동김씨 역사연구회 김영환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김봉래 : 네. 여러분 김영환 회장님과 함께한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잃어버린 문화 유산을 복원하는 일은 우리의 역사, 우리 민족의 얼을 되찾는 일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국가나 지자체만이 아니라 종중의 한 모임에서 해냈다는 사실에 커다란 찬사를 보냅니다. 그야말로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불교방송보도국 진행에 김봉래였습니다. 편안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국역『남봉집(南峯集)』발간 안내

2021년 8월 제주도문화원연합회는 안동김씨 제학공파 김시민장군의 아드님이신 남봉(南峯) 김치(金緻. 1577~1625)선조님의 문집인『남봉집(南峯集)』을 국역 발간하였다.

이『남봉집』은 처음 공의 아드님이신 백곡공(휘 得臣)께서 총 5책으로 필사(백곡본)한 것인데, 1책은 병자호란 때 유실되었고, 탐라초고(耽羅稿抄) 2책은 아우 득령(得齡)공에게 주어 잘 보관케 하였으나 현재 그 소재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또『용호집(龍湖集)』도 백곡의 매제 신씨(申氏)에게 소장케 했는데 역시 그 소재를 알 수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남봉집』(상형본) 발문 -

이후 남아 있는 필사본(백곡본) 2책은 발간되지 못하고 약 350년 동안 후손가에 전해오다가 지난 1983년 공의 10대 방손이신 한학자이신 김상형(金相馨)님께서 큰 용기와 지혜를 발휘하시어 타 문헌에 산재해 있는 공의 시와 비문 등을 찾아 종합 편집한 후 자필로 영인한『남봉집』(김상형본)을 발간하여 문중 여러분과 성균관대학교에 배부한 바 있다.

이번『남봉집』의 역자는 2001년『하담문집(荷潭文集)』을 번역한 바 있는 제주의 한학자이며 문화재위원 · 국사편찬위원회 조사위원이신 방계 후손 김익수(보명 金泰益, 하담공 휘 시양 13대손)선생께서 건강이 지극히 좋지 못한 상태에서도 오랜 기간 아무런 경제적 지원도 없는 가운데 국역 작업을 무사히 마치셨다.

이 국역 작업은 방손인 김항용씨가 국역의 필요성을 요로에 강조하고 호소하며 종재(宗財)가 없어 발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제주도 김익수선생께 알림으로서 마침내 〈제주도 문화원 연합회〉의 예산으로 발간하게 된 것이다.

『남봉집』에는 제주에 유배 왔던 광해군 관련 시와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가 수록되어 있 다는 점, 또 〈탐라고초(耽羅稿抄〉를 찾아야 한다는 당위성 등 그동안 제주의 역사 · 문화와 관련한 많은 고서적(약 10여권)을 국역 발간함으로써 제주를 빛내는데 크게 기여했던 김익수선생의 설득과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 김치(金緻, 1577~1625)

문신, 본관은 안동, 자는 사정(士精), 호는 남봉(南峯) · 심곡(深谷), 아버지는 부평부사 김시회(金時晦)인데 충무송 김시민에게 입양되었다. 1597년 알성문과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1608년 사가독서하였다, 1609년(광해군 1) 제주판관을 지냈으며, 이후 이조참의, 동부승지, 대사간, 홍문관교리, 부제학, 병조참지 등을 지냈다. 인조 때 동래부사, 1625년 경상관찰사를 지냈으며, 저서에는『심곡비결(深谷祕訣)』『남봉집』이 있다. 묘는 충북 증평군 증평읍 율리에 있다. 1674년(현종 15년)에 세워진 묘갈이 있는데 묘갈문은 아들 김득신(金得臣)이 짓고, 글씨는 손녀사위(孫壻)인 최선(崔渲)이 썼다.

격변기 대한민국을 움직인 안동김씨(安東金氏) 인물사(2)

박애정신을 실천하며 여생을 바친, 전 보사부차관 김학묵

금년은 해은(海隱) 김학묵(金學默, 1916~2001)선생이 작고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2001년 85세를 일기로 별세한 선생은 우리나라에 사회복지 개념을 첫 도입한 학자였으며, 보건사회부 차관을 지내면서도 전셋집에서 살았던 청렴한 공직자였다. 아울러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회장을 맡아 30여 년간 장애인들의 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해 정열을 바친 실천가였다.

김학묵(金學默, 1916~2001)의 자는 성신(聖臣), 호는 해은(海隱), 본관은 안동으로 문온공(휘 九容)의 후손이다. 일제 강점기 민중계몽단체인 '대한자강회'의 발기인이며 편집인이었던 춘호(春湖) 김상범(金相範, 1874~1954)공의 맏아들로 충북 음성 감곡에서 태어나 휘문고보와 보성전문(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고등고시에 합격하고 미국 미네소타대학과 대학원에서 석사와 아칸소 주 하딩대학(Harding University)에서 명예 법학박사를 받았다.

선생은 일찍이 경성방송국 아나운서로 있을 때, 음악프로그램 진행 중 창(唱)을 부르러 나온 기생을 소개하면서 여사라는 호칭을 썼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자 "사람 차별하는 곳에서는 일할 수 없다" 며 직장을 그만둔 일화는 유명하다.

이후 경기도 사회과장으로 공직에 들어가면서 해방과 더불어 유엔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영국 런던대학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연구했다. 이승만(李承晩)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사람아, 빨리 나와 배운 것 좀 써먹게" 하고 독촉하자 1951년 1.4후퇴 때 귀국하여 사회부(현 보건복지부) 구호과장을 맡아 세계 각국에서 조달해온 구호물자를 배분하는 중책을 맡았다. 허정(許政) 과도정부(1960년)에서 보건사회부 차관을 지냈으며, 연세대 등 여러 대학에서 사회사업 행정을 강의한 교수로서도 명성을 날렸고, 1965년 저술한 『사회사업개론』은 이 분야 최초의 교과서로 기록돼 있고, 12년간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을 하면서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 때는 회담을 진두지휘했다.

1972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 아픔을 겪기도 했는데, 선생은 이를 계기로 한국뇌성마비복지회를 창립하고 여생을 뇌성마비 장애인들에게 바쳤다. 셋째 아들 재덕(在德)씨가 신경이 썩어 들어가는 베세토씨병을 앓기 시작해 홍익대학교 재학 중 시각장애인이 됐다가 8년간 투병 끝에 1977년 28살의 나이로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이 사연은 KBS에서 〈소망〉 이란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다.

빨간 나비넥타이에 중절모자를 즐겨 쓰던 아담한 키의 유머가 넘치는 신사였던 선생은 동갑내기 전주이씨(全州李氏) 이영수(李英秀)여사와 결혼하여 4남 1녀를 두고 63년간을 해로하다가 1993년에 부인을 먼저 떠나보냈다. 그리고 8년을 더 사신 후 2001년 85세를 일기로 타계하셨다. 당시 뇌성마비 시인 최명숙 씨가 김학묵(金學默)전 보건사회부 차관을 영별하며 지은 헌시 한편이 고인의 삶의 향기를 은은히 전해주고 있다.

"당신은 / 우리에게 꿈과 희망의 싹을 틔워 주셨지요. / 이제 가지를 제법 뻗은 나무로 자라나 / 당신의 그늘이 되어드리기 위해 고개를 드니 / 당신은 이별의 손짓을 하며 / 먼 길 가시려 합니다. / '이 생명과 힘을, 눌린 것을, 쳐들고 굽은 것을, 펴는데 쓰리로다. 부리리로다.' 하신 당신의 말씀만이 떠나신 자리에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편히 가소서, 편히 잠드소서."

▲김학묵 전 보사부차관, 김주묵 충청일보사 사장 형제 묘

■ 언론계(신문 · 방송)에 족적을 남긴 김학묵 일가

김학묵 선생의 집안에는 유난히 언론(신문 · 방송)계에 종사하는 분이 많다. 족숙(族叔) 김상천(金相天, 1864~1937)공이 위암 장지연(張志淵)이 창간한 황성신문의 사장을 지낸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어서 부친 춘호 김상범공도 황성신문의 주필과 편집국장을 지냈으며, 본인도 경성방송국에 잠깐 몸을 담았었고, 동생 주묵(周默)씨도 한국일보 정치부장, 조선일보 정치부장, 경향신문 상무를 지냈고, 큰 아들 재형(在衡)씨는 KBS대하사극 〈용의 눈물〉을 만들어 낸 한국 TV방송 역사의 산증인으로 한국방송공사 국장을 지냈다. 둘째 아들 재휘(在徽)씨는 충청일보 사장을 역임했고, 넷째 아들 재연(在衍)씨는 인기 프로그램 'TV는 사랑을 싣고' '체험 삶의 현장' 등을 연출한 PD로 한국방송공사 국장을 지내고 현재는 남예종예술실용전문학교 부학장으로 있다.

선생은 자식들의 방송 입문을 반대하셨다고 한다. 장남 김재형PD가 사극 연출가로 승승장구하면서도 오래도록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큰 아들로 연출가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방송에 입문한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였다.
평소 아들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던 선생은 마침 〈용의 눈물〉 촬영을 진두지휘하고 있던 현장으로 전화를 한 것이다. "나다" "예, 아버님, 무슨 일로…." "이런 무식한 놈, 어떻게 상복을 입은 이방원이 아버지 이성계의 시신이 놓인 병풍 쪽으로 엉덩이를 향하고 절을 올리느냐"는 것이었다. PD를 하려면 제대로 공부를 하고 하라는 호통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시청률 40~50%를 기록하며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던 〈용의 눈물〉 연출자에게 호통 친 유일한 분이 아버지였다.

김재형 PD는 아버지가 자신의 드라마를 시청해 주셨을 뿐 아니라 평소 상대도 해주지 않던 자신에게 전화까지 해주었다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 그 이야기를 한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들려주었다는 일화는 방송가에 잘 알려진 내용이다.

▲김재형PD 묘

언론계(신문 · 방송)의 족적을 남긴 김학묵 일가

관계	명(名)	학력	이력
祖父	형식(亨湜) 1843~1932 자 자성(子成) 호 성재(醒齋)	진사(進士) 통정대부	휘릉참봉(徽陵參奉)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견복(甄復) 사범학교교관
父	상범(相範) 1874~1954 자 내홍(乃弘) 호 춘호(春湖)	진사(進士) 통정대부	대한자강회 발족 대한자강회 회보 편집인 황성신문 주필. 편집국장 창성 · 정주군수(定州郡守)를 지냄
本人	학묵(學默) 1916~2001 자 성신(聖臣) 호 해은(海隱)	보성전문 미네소타 대학 영국런던 대학	미국 하딩대학교(Harding Univ··) 명예박사 경성방송국 최초 아나운서 보사부차관, 적십자사 사무총장, 부총재, 뇌성마비협회장, 대종회 고문, 국민훈장목련장, 미국독립2백주년기념장 수여 적십자인도장 수여
弟	주묵(周默) 1918~1988	와세다 대학 (早稻田) 법학부 졸업	국무총리 비서관 한국일보 정치부장, 조선일보 정치부장, 경향신문 상무, 민주당 중앙위원 제4대 민주당 국회의원 (음성지역구)
長男	재형(在衡) 1936~2011	경기상고 동국대학교 국문학과졸	한국방송공사 국장 KBS TV 제작본부 위원, 교수, 학장, 영화제 집행위원장 용의 눈물 · 여인천하 · 왕과 나 드라마 서울의 달, 한명회 등 다수 연출.
次男	재휘(在徽) 1941~2021	성균관대 졸업 경영대학원 석사	현대그룹 동서산업 회장 한라그룹 부회장, 임광토건 사장 충청일보 사장, 신문발행인협회 감사, 극동대학교 교수
三男	재덕(在德) 1949~1977	홍익대 미대	미대 재학 중 베세토씨병을 앓다가 시각장애인이 되어 8년간 투병하다 28세로 병사(病死). 이 이야기는 KBS에서 '소망'이란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다.
四男	재연(在衍) 1953~	중앙대학교 졸업	한국방송공사 국장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이사 체험 삶의 현장, TV는 사랑을 싣고, 한국인의 밥상 등 다수 연출 ABU 아시아상 수상 남예종예술실용전문학교 부학장

〈참고자료〉

- 안동김씨족보 / 을미대동보 / 2015년
- 도전하고 질문하고 의심하라 / 저자 김재연 / 출판 누벨끌레

– 사무총장 김태영 –

訃音

(翼)용대 대종회 고문 별세

안동김씨대종회 용대(容大) 고문께서 2021년 10월 05일 향년 8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장례는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에서 코로나19에 의해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졌으며 청주 현암동 선영에 모셔졌다.

1934년생인 용대 고문은 익원공(휘 사형) – 효소공 (휘 작) 후손으로 2남 1녀를 두었으며, 기업을 운영하면서 문영공종회, 익원공파종회, 효소공종회, 함열공종회 회장을 지내는 동안 종사에 열성을 다했으며 한가락회 회원으로 시조 한시 등 충신열사와 관련된 작품들을 남기기도 했다.

(副)규장 대종회 고문 별세

철원향교 전교와 부사공파종회 회장을 역임하신 안동김씨대종회 규장(圭章,在) 고문께서 2021년 10월 17일 향년 9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장례는 성남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코로나19에 의해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졌으며 용인 '평온의 숲'에 모셔졌다.

1931년생인 규장 고문은 부사공(휘 천순)의 후손으로 삼도통제사 · 총융사 · 훈련대장을 지낸 중기(휘 중기)의 9대 손이며 철원향교 전교를 지낸 윤환(允煥)의 차남이다. 자손은 3남3녀를 두었으며 생전에 열성을 다해 요동백 충무공(휘 응하)선조 현양에 앞장서고 종사에 열성을 다했다.

‘미라클 작전’을 현장에서 총괄한 김일응 공사참사관

2021년 8월 27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도왔던 협력자 390명을 국내로 이송하는 ‘미라클 작전’을 총괄하여 성공으로 이끈 아프가니스탄 주재 한국대사관 김일응 공사참사관이 세계 언론에 주목 받고 있다.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전쟁의 땅, 눈물의 땅, 아프간에서 위험하고 어려운 일, 모두가 말리는 일이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라며 가난하고 척박한 땅의 사람들을 찾아가 이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돕는 일을 했던 김일응 참사관, 그는 이번 ‘미라클 작전’의 기적을 만들어 내며 세계인의 감동을 주었다.

“꼭 다시 데리러 오겠다” 약속지킨 미라클작전

미국이 2001년 9.11 테러를 기점으로 시작한 20년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식하고 철수하자 탈레반은 미국. 한국 등 자국에 협력해온 아프가니스탄인 들을 무차별 보복에 나섰다. 우리 정부는 탈레반 치하에서 목숨이 위험한 아프가니스탄 주재 한국대사관과 파견부대 근무자, KOICA 협력자, 직업훈련원, 병원, 건설현장 근무자 등 한국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 구출을 위한 미라클(miracle) 작전을 전격 감행했다.

대한민국 공군수송기 C-130J 두 대와 다목적 공중급유기 KC330 한대가 카블 공항 활주로를 힘차게 날아오르는 순간 긴장감이 가득한 기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이들은 손에 태극기를 쥐고 있었고, 기내에는 목숨이 위험한 아프가니스탄인 390명이 타고 있었다.

아프간 탈출 과정에서 우리 대사관 직원이 공항에서 아프간 사람을 격하게 끌어안는 사진이 온종일 화제가 됐다.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지킨 김일응 공사참사관은 탈레반이 버스를 14시간 가까이 막았을 때가 최대 고비였다고 회상했다.

이들의 구출작전을 현지에서 진두지휘한 김일응 공사참사관은 카블을 탈출하여 카타르로 대피해있다가 일주일 만에 외교관 3명과 함께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다시 아프카니스탄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김 참사관은 비상연락망을 통해 카불 공항 근처에 집결지 2곳을 정하고, 미군의 도움을 받아 6대의 버스를 구해 카블 공항으로 이동하며 상황을 진두지휘 했다. 버스 안에 갇혀 있었던 시간은 무려 14~15시간. 꼬박 밤을 새우고서야 6대의 버스는 공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남았던 13명이 27일 추가로 입국하면서 ‘미라클 작전’은 종료됐다. 역사상 처음 이루어진 해외 협력자 구출작전이다.

김일응 공사참사관은 누구인가?

김일응(金日應, 1969생) 참사관은 안동김씨 제학공파 사간공(휘 顧)의 차남 중렴(仲廉)의 후손으로 아버지 상원(相元)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 용인에서 태어났다.

김 참사관은 안양고등학교를 나와 한국외국어대에서 불어를 전공하고 외무고시(제33회)에 합격했다.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외무부에 들어가 프랑스, 아프칸 지방재건팀, 뉴욕(주유엔 대표부), 이라크, 벨기에 등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카타르 임시사무소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두 딸을 두었는데 큰 딸 민주(旻柱)는 영국의 대학에 재학 중이고 작은딸 규원(奎媛)이는 중학생이며 아내 장수경씨와는 4년 전에 사별했다. 공저로 『너와 내가 함께 하면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등이 있다. 김 참사관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은 이상주의자이자 인생을 마치기 전에 심장이 두근대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 로맨티스트다.

김 참사관은 두 딸이 걱정할까 봐 다시 카불로 간다는 얘기도 못 했다고 고백했다.

“아빠 뉴스 나오는 거 같은데 카불 다녀왔느냐고. ‘아이 참 아빠는’ 이런 딸들의 얘기를 들었지만 모든 사람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했다.”

◀ 유엔대표부에서 근무할 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바로 뒤가 김일응 외교관

국립중앙도서관 “안동김씨 문고” 장서본 수집 현황

고문서 기증 현황 (2021.11.30 현재)

일자	기증자	기증품	수량	비고
4.14	대종회	족보류(기미보, 을유보)	40권	국중도
6.16	(翼)김재훈 고문	효자 김진태 관련고문서	7점	대종회
6.23	(正)김원식	전운옥편	2책	〃
〃	(翼)김태철	효자 김장년 관련고문서	18점	〃
6.30	(提)김규철 이사	고문서 14전, 교지류 12점	26점	〃
7.13	(提)극제공종중 김운철	고서 5책, 교지류 27점	32점	〃
7.15	(翼)파종회 소장본	고서(족보)	46책	〃
7.16	(按)김용주 이사	고서(우암문집.족보)	10권	〃

일자	기증자	기증품	수량	비고
8.13	(按)김현수 사무국장	오은공신도비문 외	7책	〃
〃	(按)김형남 파종회장	어제갱진첩 외	21점	〃
9.06	(提)김철응	족보.문집류.고문서	44점	〃
9.24	(按)서려공종회 소장본	족보류 외	70권	〃
〃	(按)파종회 소장본	족보류	38권	〃
10.07	(翼)김종성(삼소재)	문집류	62권	〃
11.16	(提)김용식 이사	상락가승 외	40권	〃